

# 광주세계양궁대회 선수단 “한국·남도의 멋과 맛 제대로 느껴”

“한국이라는 나라, 광주라는 도시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선수단 8명은 지난 9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광주시가 선수단을 위해 운영하는 ‘호스트 시티 투어(Host City Tour)’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에게다.

민주주의의 앞선 선수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추모탑을 향해 걸어갔다. 안내에 따라 분향과 참배를 마친 이들은 해설사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르고 있던 선수단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상황과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설명이 이어지자 사뭇 진지해졌다. “민주주의를 쉽게 이론 게 아니었다”며 동료들과 조용한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묘역을 둘러보던 선수단은 문제학 열사 묘 앞에 멈춰섰다. 많은 사람들이 오간 탓인지 유독 잔디가 죽어 바닥의 흙이 드러나 있었다.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주인공”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이해가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민주묘지에서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한 선수단은 전남 담양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두고 버스에 올라 탄 선수단의 얼굴에는 이내 설렘이 묻어났다.

대회 기간 광주 도심에만 머물렀던 이들은 빼빼한 대나무 숲이 조성된 죽녹원, 담양천과 조화를 이룬 관방제림을 돌면서 “한국스러운 풍경”이라며 감상이 컸었다.

가다리던 점심 식사 시간. 담양의 대표 음식인 떡갈비와 대동밥을 마주한 선수들



2025 광주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단 대상 팸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선수단이 9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시스

## ‘호스트 시티 투어’에 리투아니아·헝가리 선수단 5·18민주묘지, 담양 죽녹원·메타세콰이어 등 탐방 떡갈비 맛보자 ‘엄지척’... 수려한 경관에 감탄사도 “한국 민주주의, 광주라는 도시 알 수 있는 기회”

은 음식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어설픈 젓가락질로 떡갈비를 한입 베어 문 한 선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자 이를 본 동료들은 너도나도 떡갈비를 공략했다. 한상 거하게 차려진 남도의 음식을 제대로 맛본 선수들은 메타세콰이어길과 장평면 슬로시티를 둘러보며 투어를 마쳤다.

헝가리 선수단 겐고 엘락티스(23) 코치는 “한국도, 광주도 처음이다. 자연 경관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한국의 맛과 멋, 다양한 문화를 많이 배우고 간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선수단을 위해 광주 도심과 근교를 둘러볼 수 있는 호스트 시티 투어를 운영한다. 시내 코스는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충장로, 양림동 등 중심으로, 근교 투어는 5·18민주묘지,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장평 슬로시티로 구성됐다. /오권철 기자

생활비를 벌여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600만원을 선고했다.

## “양육비 벌려고” 무허가 비상장주식 매매 일당 징역·벌금형 비인가업체 2곳 대표들, ‘전업주부’ 직원 14명 기소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최대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업체 대표인 A·B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고자 비상장 주식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삼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금융감독기

관에 적발됐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뿐 과장 광고나 사기 행각은 없었다. 매매가도 거래 상대방과 상의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통상 정해진 값에 팔았다. 전체 매출의 1%를 서로 나눠가져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대다수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벌여보고자 했을 뿐”,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법 지식에 무지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금융 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투자성이 있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불완정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 거래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적 거래 정황은 없고, 거래 규모 대비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민규 기자

## 광주시, 양동복개사가 철거·이전 검토

광주시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양동복개사가 철거·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아래로 흐르는 광주천 정비와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함에 따라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하고 수십년동안 상가를 운영한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천 위에 조성돼 있는 양동복개사가 집중호우 때 범람 위기로 인해 상인·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어 광주천 복원사업과 병행해 철거·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22일과 8월6일에 복개사 상인들과 만나 광주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철거·이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의견을 청취했다.

양동복개사는 1975년 광주천을 가로지르는 태평교 위에 조성됐다. 상가 256개가 밀집돼 있으며 광주의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인접해 있어 주말·명절에는 수천명이 다녀갈 정도의 지역 대표 상권이다.

하지만 하천 위에 상가가 조성돼 있어 집중호우 때 범람 우려로 인해 주민·상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17일 하루 동안 426.4mm의

비가 내려 1939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일강수량을 기록했을 때 태평교 범람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 8월7일에도 태평교 하부까지 광주천 물이 차올라 경찰이 도로 통행을 통제했다.

광주시는 극한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양동복개사가 철거를 통해 광주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의 복개사는 양동시장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동복개사가 철거·이전·광주천 복원을 동시에 추진 하기 위해서는 1조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우선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하천 복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양동복개사가 상인회 설득도 동시에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양동복개사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더 큰 비가 내리면 막대한 재산피해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광주천 복원과 맞물려 복개사가 상인들의 수십년 터전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공사기간 임시로 상가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근 기자

## 광주 남구·교육청, 봉선2동 학군지 위장전입 근절 나선다 남구, 전입 확인 강화... ‘불법조장’ 부동산 점검도 교육청, 초교 입학 안내서에 위장전입 문제 안내

광주 남구와 시교육청이 유명 학군지로 꼽히는 봉선2동의 불법 위장전입 실태 점검과 근절 방안 모색에 나선다.

11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서부교육지원청과 봉선2동 불법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봉선2동에서는 진학 편의 등을 이유로 특정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있었지만 사생활 등을 이유로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5년간 남구 위장전입 관련 고발 건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위장전입 문제에 따른 과밀학급, 학벌주의 심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근절 해법을 찾기로 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유행하는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지자체 협조를 얻어 매년 각급 학교 단위로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장전입 102건을 적발했다. 대구에서도 2017년 교육청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학군지

위장전입을 밝혀낸 바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 전입을 관리하는 남구는 전입신고 가구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봉선2동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관련법에 따라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거주지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잇따른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와 학교·교육청 간 위장전입 사례를 공유하고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사실 조사 기간 때 의심 지역 대한 특별 점검도 고려한다. 교육청과의 합동 점검도 법적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위장전입용 매물을 소개하는 ‘꼼수알선’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업체를 제도·점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도 각 학교에 위장전입 예방 공문을 보내고 입학 안내서에도 관련 문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